

“CEO에 창조경영 영감 줄 작가는 정연두·김기라·장지아”

■ 추천 작가 물었더니...

선구안 좋은 서진석 대표에게 작가 추천을 청했다. “거의 모든 작가가 각자의 좋은 면을 갖고 있다”며 대답을 꺼리기에 ‘더위에 지친 최고경영자(CEO)에게 창조경영의 영감을 줄 작가’로 좁혀 물었더니 정연두·김기라·장지아를 꼽았다.

설치작가 정연두는 빠른 근대화와 압축성장으로 간과된 우리의 주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 대표는 “흔히 정연두의 작품에서 혼성성·다양성·역동성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성으로 형성해내는 미묘한 분위기(atmos-

phere)”라며 그의 작품을 통해 기업들 역시 성장으로 놓쳤던 고유의 분위기를 되새겨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기라 작가에 대해서는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을 자기화(自己化)해 재조립하는 감각과 능력이 국내 최고”라 칭하며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신(神)뿐이고 우리에게서 이미지와 개념의 재생산이 중요한 만큼 사회와 예술계를 넓게 보고 다양한 사례를 자기에 맞게 재조합할 수 있는 게 포스트모더니즘적 창조”라고 말했다. 더 이상 새로울 것 없어 보이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할 창조경영의 아이디어를 그의 작품에서 얻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지아 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식탐 등 인간이 가진 본능적 욕구에 대한 표출에 있어서 관습적 규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결코 자극적이지 않다”며 “성적 이미지가 자칫 쾌락적 추구만 남기는데 그의 작품은 나체·분비물 등을 보여주면서도 야하지도 더럽지도 않다”고 소개했다. 욕구의 분출을 보여주지만 계산적이지 않은 시도이며 이미지에 합당한 개념이 동반되기에 의외로 그 결과물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추구하는 소비코드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다. /조상인기자